



‘한 방’ 있는 ‘안방지기’ 꿈꾼다

2024 시즌 기다리는 KIA 포수 한준수 생존경쟁 돌입 “언제 나가도 역할 하도록 집중...더 좋은 모습 보일 것”

“야구가 너무 하고 싶다”며 KIA 타이거즈 한준수가 2024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KIA 포수 한준수에게 2023시즌은 ‘특별함’이었다. 2018년 1차 지명 선수로 입단해 기대와는 다른 몇 해를 보냈던 그는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군복무를 한 뒤 2022년 12월 KIA에 복귀했다. 전역 후 첫 시즌을 위해 칼을 갈았던 그는 6월 25

일 마침내 1군에 콜업됐고, 6월 28일 키움전을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 한준수는 이후 10월 17일 NC전까지 48경기에 출전했다. 2019시즌 7경기 출전이 전부였던 한준수는 지난 시즌 22개의 안타를 기록했고, 이 중 2개의 공은 담장 밖으로 날렸다. 프로 첫 결승타도 장식하는 등 한준수는 전역 후 첫 시즌에서 시원한 스윙을 보여

주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한준수는 “2023시즌은 특별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전역하고 와서 얼마 안 됐지만 너무 좋고, 특별했다”며 “비시즌인데 야구가 너무 하고 싶다. 빨리 시즌이 돌아오면 좋겠다”고 웃었다. 좋은 시즌을 보냈던 만큼 한준수의 마음은 이미 2024시즌으로 향해있다. 팀도 한준수가 새로 가세한 포수진을 기대감 속에 지켜보고 있다. 다년계약을 통해 베테랑 김태균으로 안방 중심을 잡은 KIA는 치열한 백업 경쟁으로 포수진 동반 성장을 노리고 있다. 한준수도 치열해진 경쟁 속, 확실하게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한준수는 “마무리캠프에서 진짜 공을 많이 던졌다. 시즌 때 못했던 것을 생각하고 갔고, 변하는 모습이 좋았다. 시합 때 문제점들을 코치님께 물어보고 수비 쪽에 신경 많이 썼다”며 “도루 저지나, 저지할 때 자세 등을 신경 썼고 공을 많이 던지면서 감각을 많이 키웠다”고 말했다. 마무리캠프에서 수비에 무게를 뒀던 한준수는 올 시즌 경쟁의 키워드 역시 ‘수비’로 삼고 있다. 한준수는 “방망이는 들쥎고 수비를 더 잘해야 한다. 수비를 더 생각하고 있다. 2024시즌에도 잘해야 하니까 비시즌 열심히 보내겠다”고 말했다. 물론 포수로서 수비도 중요하지만 타자이기도 한 만큼 한준수는 타격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한준

수는 ‘집중력’으로 타격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한준수는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지난 시즌 타격에서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많이 아쉬웠다. 더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못 나갔다. 그 점 보완해서 출루율을 높여야 한다”며 “타이밍이다. 언제 경기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잘 해야 하니까 준비하고 있다. 야구장에서 집중하는 모습 보이겠다. 언제 나가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경기에 집중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이리다 우승? ... 브라질 공격수 빅톨 영입



195cm 큰 키에도 스피드 뛰어난 “팬들에게 자랑스러운 팀 될 것”
광주FC가 가브리엘에 이어 브라질 ‘특급 공격수’ 빅톨을 영입했다. 광주는 10일 팀 공격을 이끌 새 외국인 공격수 빅톨(26·Joao Victo Magno de Souza Machado·사진)과의 계약 소식을 전했다. 최전방 공격수인 빅톨은 경합 상황에서 195cm의 큰 키를 활용해 우위를 점하며, 좋은 헤더 능력도 갖추고 있다. 큰 키에 비해 스피드도 뛰어나 압박과 역습 상황에서의 움직임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 또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와 결정력에서 강점을 보인다. 2015년 아를스FC(리우데자네이루주 1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빅톨은 메이라스 등에서 임대 생활을 거쳐 2018-19시즌 포르투갈 스포르팅 브라가B 팀으로 임대돼 포르투갈에서 유럽 무대에 데뷔했다. 빅톨은 2022-23시즌 룩셈부르크 F91 뒤들랑주로 이적한 뒤 리그 28경기나와 17골 14도움이라는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다. 2023년에는 브라질 고아스EC(세리에 A)로 이적해 19경기 출전 3골 2도움의 성적표를 작성했다. 빅톨은 “새로운 환경이 낯설지만 적응하고 있다. 재미있는 축구를 하는 광주라는 팀의 한 부분이 되고 싶은 마음이다”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ACL)에 나가는 광주가 어떤 팀인지 상대에게 각인시키고 팬들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빨간 양말 신을까

보스턴, 선발진 추가 보강 ‘발등의 불’ ... 후보군 언급

일본인 좌완 투수 이마나가 쇼타(30)를 놓친 미국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가 류현진(36) 영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AP통신, 교도통신 등은 10일 이마나가와 시카고 컵스가 계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보스턴은 지난해 11월 이마나가의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 절차가 시작되고 꾸준히 구에 공세를 펼쳐왔으나 결국 실패를 맛봤다. 제임스 팩스턴(35)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풀려난 보스턴은 작년 12월 우완 루커스 지올리토(29)를 영입했으나 좌완 크리스 세일(34)이 트레이드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떠나면서 선발진 추가 보강이 시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류현진이 보스턴의 선발 로테이션을 채울 선택지로 떠오른 것이다. 보스턴글로브는 이날 “보스턴은 첫 공식 훈련까지 5주가량 남은 시점에서 선발진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FA 자원은 그새 줄어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을 인용하며 “시장에 남아있는 블레이크 스넬이나 조던 몽고메리(이상 31)와 높은 금액에 계약할 가능성은 적다”면서 류현진을 비롯해 팩스턴, 마커스 스트로먼(32)을 후보군으로 언급했다. 다만 이 매체는 보스턴이 트레이드 시장에서 젊은 선발투수를 모색하고 내년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봤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SI)도 비슷한 관측을 내놨다. SI는 “크레이그 브레슬로 야구 부문 사장에겐 남은 선택지는 트레이드로 보인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팩스턴, 류현진 등 영입으로 선회할 것”이라고 봤다. NBC 스포츠는 마이크 클레빈저가 보스턴행을 선호한다는 소식을 전한 뒤 류현진을 경쟁 후보군에 넣었다. /연합뉴스

‘AI敗퍼스’ 정관장 잡고 전패·연패 탈출 도전

AI페퍼스가 정관장을 상대로 ‘전패’와 ‘연패’ 탈출에 동시 도전한다. 프로여자배구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는 11일 오후 7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 레드스파크스와 4라운드 대결을 펼친다. 정관장은 페퍼스가 2021년 창단 이후 단 한번도 이겨본 적 없는 팀이다. 페퍼스는 지난 12월 8일 열린 정관장과의 3라운드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지며 정관장전 ‘15전 15패’를 기록했다. 당시 페퍼스는 박정아가 ‘어깨 부상’으로 단 2점만 올린 채 코트를 벗어났다. 박은서가 대신 투입되면서 서브에이스로 바꾼 분위기를 이어 2세트를 차지했지만, 3-4세트 정관장의 화력에 쓴 패배를 맞았다. 정관장은 9승 12패 승점 30점을 기록하며 현재 5위, 페퍼스는 2승 19패 승점 7점으로 최하위인 7위다. 정관장은 지난 6일에 펼친 직전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처음으로 GS칼텍스에 승리를 거뒀다. 메가가 16점, 지아가 14점, 이소영이 11점을 올리며 41득점을 합작해냈다. 페퍼스는 지난 7일 펼친 흥국생명전 이후 4일 만에 이번 경기를 펼친다. 페퍼스는 이날 맹훈련의 결과를 보여주듯 하나



AI페퍼스 필립스(왼쪽)와 박은서가 3라운드 정관장전을 펼친 지난 12월 8일, 경기가 끝난 뒤 코트를 벗어나고 있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된 팀워크로 초반 기세를 잡으며 승리의 기대감을 일으켰지만, 아쉬운 패배를 기록했다. 현재 14연패 수렁에 빠져있는 페퍼스는 연패 탈출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상황이다. 페퍼스가 현재 기록하고 있는 14연패는 정규리그 최다 연패 5위다. 그 위에는 페퍼스가 지난 두 시즌(2021~2022, 2022~2023)에 기록한 17연패

가 공동 3위에 자리하고 있다. 스스로의 최다 연패 기록을 깨지 않기 위해서는 페퍼스가 앞으로의 4번의 경기 안에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만 한다는 뜻이다. 정관장 상대 ‘첫승’에도 도전해야 하는 페퍼스가 과연 이번 경기를 통해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

SD 고우석 등번호 19번 아니다?

‘전설’ 토니 그윈 ‘19번’ 영구결번에 21번 배정 받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고우석(25)이 새 등번호를 달고 뛴다. 샌디에이고 구단이 10일(한국시간) 공개한 2024시즌 40인 명단 등번호를 보면, 고우석은 ‘21번’을 배정받았다. 고우석은 KBO리그 LG 트윈스 소속 시절 등번호 19번을 달고 뛰었다. 배번 19번에 관한 애정은 컸다. 그는 대표팀에서도 19번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뛰었다. 지난해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고우석은 19번을 달고 출전했다. 당시 고우석은 한국대표팀에 합류한 메이저리거 토미 현수 에드먼(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과 배번이 겹쳤지만, 에드먼의 양보로 19번을 달기

도 했다. 고우석이 샌디에이고에서 등번호 19번을 포기한 이유가 있다. 이 번호가 구단 영구결번이라서다. 19번은 샌디에이고의 전설적인 선수 토니 그윈이 사용하던 번호다. 샌디에이고 주립대를 졸업한 그윈은 1982년부터 2001년까지 샌디에이고 한 팀에서만 뛰었고, 통산 20시즌 동안 2천440경기 타율 0.338, 135홈런, 1138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그는 총 8차례 내셔널리그 타격왕에 올랐고, 15차례 올스타에 뽑혔다. 그윈은 은퇴 후 샌디에이고 주립대 감독으로 활동하다 2014년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연합뉴스